"신라 도래인, 日불교 형성에 큰 영향력"

마이클 코모 교수, 3월 30일 동국대 초정 강연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신라 도래인들이 일본불교 형성과 쇼토쿠(聖德) 태자 영웅화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종교학 전문가인 마이클 코모(Michael Como, 사진) 미국 콜롬비아대 교수는 3월 30일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단이 개최한 제30회 해외석학 초청 강연서 이 같이 주장했다.

'쇼토쿠 태자의 불교 의식에 보이는 신라의 영향과 일본불교의 뿌리'를 주제로 진행된 강연에서 코모 교수는 고대 일본에서의 불교경전에 대한 이해와 사용이 초기의 일본 불교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밝혔다. 특히 그 과정에서 쇼토쿠 태자의 역할과 시텐노지(四天王寺) 창건, 그리고 신라 도래인들의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를 풀었다.

일반적으로 쇼토쿠 태자는 호류지와 연계된 연구들이 주류이지만, 나니와(難波,현 오사카)의 시텐노지를 코모 교수는 주목했다. 그 이유에 대해 코모 교수는 "수 많은 백제계 씨족과 관련된 호류지와 달리 시텐노지는 신라계 도래인 부족과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며 "이들 관계들이 일본불교의 도래와 전설의 형성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실제 〈일본서기〉에는 '야마토 조정이 불상을 숭배했던 소가 씨 일족을 지지했고, 이와 대립한 모노노베 씨 일족은 결국 전쟁을 했다. 이 과정에서 쇼토쿠 태자는 소가 씨를 대신해 사천왕에 기도하며 친불교 측의 승리를 빌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코모 교수는 이 같은 기록이 '불사창건설화', 즉 연기 설화라고 규정했다. 쇼토쿠 태자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연기설화의 사찰이 시텐노지라는 것이다.



쇼토쿠 태자 관련 설화들 분석

'일본서기' 제작에 신라계 참여

韓日 사천왕사 연기설화 유사해

신라 세력 높아지자 사절 보내고

日사절들 사천왕사 설화 배워와

쇼토쿠 태자 '영웅만들기' 일조

이에 대해 코모 교수는 "신라 도래인들의 집단들이 나니와의 시텐노지와 밀접히 연결돼 있었을 것"이라며 "〈속일본기〉에도 시텐노지와 연관된 씨족으로 신라계인 키시·히타·마야케 무라지들을 언급하며 이들이 '시텐노지에서 연례 행사로 춤을 공양했다'고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신라계는 백제계와는 달리 내전을 거쳐 집권한 텐무천황을 지지했고, 〈일본서기〉 편찬에도 관여하며 정치적 영향력도 확대해 갔다. 7세기 국제관계에서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하고 당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는 등 세력이 강화되고 있던 부분도 신라계 도래인들이 일본에서 영향력을 넓힐 수 있던 요인이 됐다.

코모 교수에 따르면 신라가 당에 승리한 직후 야마토 조정은 사절단을 신라로 보내며, 이를 이끈 것이 신라계 일족들이다. 이들은 당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것이 경주 사천왕사에 기인한다고 봤고, 관련된 연기설화를 배워가게 된다. 실제, 한국과 일본 양국의 사천왕사의 연기설화는 '재앙 예견- 풀로 사천왕 이미지 구현- 승리시 사찰 창건 기원- 사찰 창건'으로 이어지는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그러면서 코모 교수는 "사천왕사의 전설이 일본 불교 전통에서 연기설화에 기초가 됐다"면서 "야마토로 돌아온 신라계들은 일본불교 연기설화를 수정해 쇼토쿠 태자를 전투에서 승리하고 호국 사원인 시텐노지를 창건한 영웅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쇼토쿠 태자에 관한 설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역사적 인물로서 쇼토쿠 태자는 금방 잊혀졌지만, 태자의 전설은 1000년 넘게 전승되며 일본불교 발전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다.

신흥사 극락보전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 27일 지정예고… "역사·문화적 의미 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의 극락보전〈사진〉이 보물로 지정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강원도 속초에 소재한 '신흥사 극락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3월 27일 밝혔다.

외설악에 자리한 신흥사는652년(신라 진덕여왕 6년) 자장율사(慈藏律師)가 향성사라는 이름으로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임진왜란 이후 1642년(인조 20년) 화재로 사라진 사찰을 1644년(인조 22년) 원래 터에서 아래로 10리 떨어진 곳에 신흥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워진 이후 여러 차례의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신흥사 극락보전은 〈설악산신흥사대법당중창기(1749)〉, 〈신흥사극락전중수기(1770)〉 등의 자료를 통해 1749년(영조 25년)부터 1821년(순조 21년)까지 4차례 수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보수공사 기록 등 연혁을 확인할 수 있는 풍부한 문헌 기록을 갖고 있어 건물의 역사가 잘 남아있는 편이다.

극락보전은 18세기 중엽에 중건한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多包)식 팔작지붕 건물로, 세부의장과 공포형식이 우수하고 기단과 계단, 창호 등 높은 품격의 요소들도 잘 보존돼 있다.

특히, 기단의 모란, 사자 문양과 계단 난간 소맷돌의 삼태극(원을 3개로 분화한 태극 형태), 귀면(鬼面), 용두문양 조각들은 다른 사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귀한 사례이다.

한편,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 예고한 신흥사 극락보전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고성 옥천사 나한상 조성시기는 1707년"

김요정 충북대 연구원

옥천사 학술대회서 주장

4구 나한상 연륜연대분석

연대 비교통해 시기 확인

"벌채 후 바로 존상 조성"

'연륜연대분석'이라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경남 고성 옥천사 나한상에 대한 조성연대가 1707년으로 밝혀졌다.

김요정 충북대 목재연륜소재은행 책임연구원은 3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열린 '고성 연화산 옥천사의 불교문화재' 학술대회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김 연구원은 옥천사 목조 나한상 4구에 대한 연륜연대분석을 시행해 존상의 수종과 제작시기를 분석했다.

조사연구는 나한상 몸체에서 자연탈락된 부분서 시료를 채취해 이뤄졌고, 이를 통해 목조나한상의 수종은 소나무임이 확인됐다.

나무의 나이테 패턴을 관찰해 문화재 등의 연륜연대를 측정하는 '연륜연대분석법'을 통해서는 조성시기가 확인됐다.

김 연구원은 "연륜연대분석을 위해서는 대상 유물에 포함된 연륜의 수가 50개 이상돼야 한다"면서 "4구의 나한상에서 측정가능한 연륜의 수는 49·57·59·68개였고, 연륜패턴은 모두 동시대로 일치해 72년간의 나한상연륜연대기가 작성됐다"고 설명했다.



3월 24일 열린 옥천사 학술대회에서 김요정 연구원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어 "옥천사 나한연륜연대기는 표준연륜연대기와 비교를 통해 마지막 연륜에 1706년이 부여됐다. 마지막 연륜에는 수피부에 해당하며 만재가 형성됐다"면서 "이에 따라 1706년 늦가을에서 1707년 초봄 사이에 벌채가 이뤄졌고, 나한상 제작 시기는 1707년임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불상 제작을 위해 목재 건조시간이 필요하다는 일반론에 대해서는 "완주 대원사 명부전 불상과 고흥 능가사 응진전 불상의 복장연대 및 연륜연대 비교연구에서도 벌채 후 바로 제작됐음이 확인된 바 있다. 옥천사 나한상도 이 같은 방식으로 제작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와 고성 옥천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대구 길상사 주지 도해 스님의 '〈옥천사사적기〉 번역과 의미'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의 '고성 옥천사 대웅전 석조불상 연구' △김규순 대한풍수연구원장의 '고성 옥천사의 지형과 인문학적 해석' △김미경 문화재청 문화재 감정위원의 '고성 옥천사 소장 1737년작 지장보살도 검토' 등이 각각 발표됐다. 신성민 기자

내소사 아미타삼존불 등 전북도문화재 지정돼

부안 내소사 목조 아미타삼존불상〈사진〉 등 4건의 불교 성보가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됐다.

전라북도는 3월 28일 전라북도청 3층 중회의실에서 전라북도 지정문화재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전라북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성보는 부안 내소사 목조아미타삼존불상(제 255호), 완주 수왕사 목조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제256호), 정읍 무량사 목조여래좌상 및 복장유물(257호), 남원 실상사 건칠아미타불좌상과 건칠관음보살입상(제258호)의 4건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인사말에서 "이제 전북 몫을 당당히 찾고 자존의 시대를 열어 가는데 우리 고장의 생생한 역사와 문화재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은 "소중한 성보문화재들의 전북도 지정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불교문화재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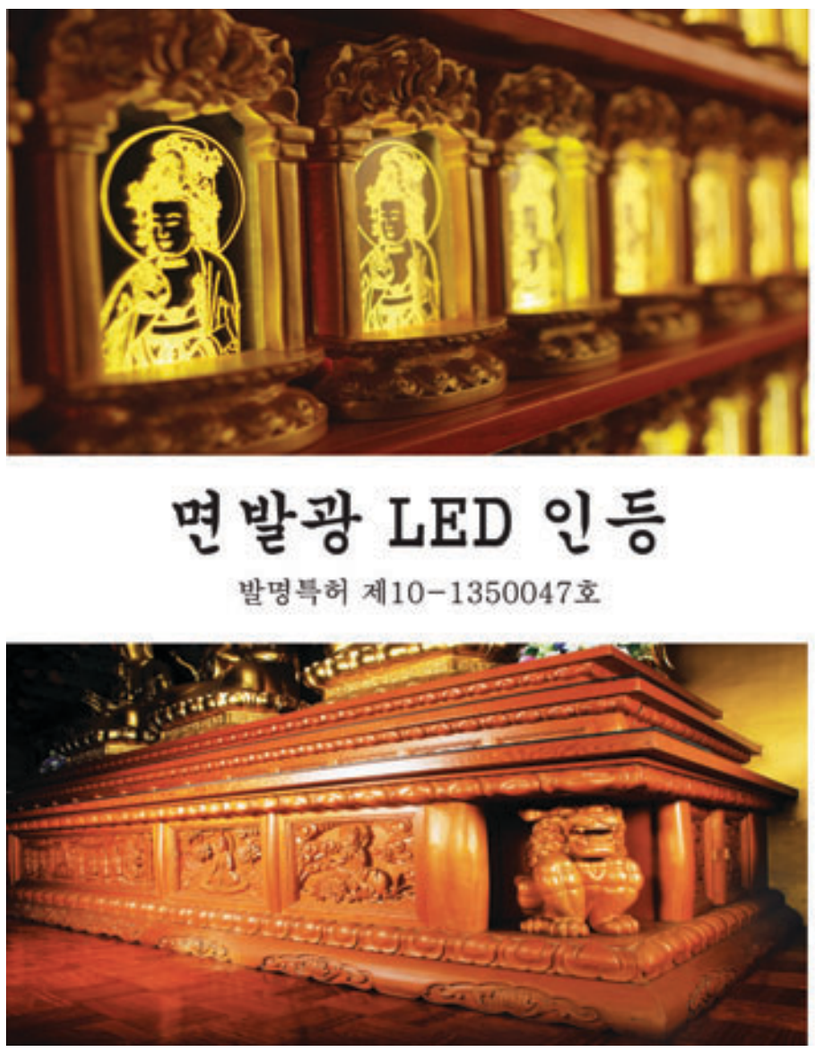
원효사상과 화성 당성 조명 학술대회 열린다

화성문화원 4월 7일 개최

원효사상과 화성 당성의 정신문화 유산으로서 가치를 확인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화성문화원(원장 고정석)은 4월 7일 서화성농협 대강당서 '정신문화 유산으로서의 원효사상과 화성 당성'을 주제로 제2회 화성불교문화유적 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정희경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의 '원효 전기 자료의 재검토'를 비롯해 △윤명철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의 '원효의 오도처 화성 당성' △김경집 진각대 교수의 '원효의 정토사상과 대중불교: 그 현대적 의의' △백원기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 '현대문학 속의 원효' 등이 주제 발표된다. 이에 앞서 선진규 봉화산 정토원 원장의 기조 강연도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빙의(귀신들림) 치유 상담 환영!!

몸안에 들어온 영가 빼내는(천도) 전국 최고의 실력으로 보답합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싯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마다 가위눌리는 경우.
- 불면증 심하거나 자면서 비명 지르고 헛소리, 중얼거림이 심한 경우.
- 어느 싯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희귀병 투병중인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 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중,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행동, 폭력적행동, 학습능력 저하, 자살 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 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동물령, 식물령도 천도 가능함.

[꼭 천도해줘야 할 영가]

- 자살(음독,목매어,투신)했거나 원한이 많은 상태로 죽은 경우.
- 갑작스런사고, 병고, 심장마비로 죽은 경우.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 원격 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 가능)

상담 문의처 |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현대불교신문 구독 안내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